

'익산 나눔공간' 만족도 최고

위기가구 지원군 효과 특출... 타지역 벤치마킹 이어져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도입한 나눔 공간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위기가구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는 내년부터 효율성을 더욱 높인 나눔공간 시정을 본격 시행해 더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나눔 공간 이용자 1만4천600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4%가 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했다. 제공된 물품의 양과 질에 대해서도 90.8%가 만족하였으며 최선호

물품은 백미로 나타났다. 나눔공간을 이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갑자기 생활현편이 어려웠는데 나눔공간 개장 소식을 듣고 이용하였다는 응답이 78%였으며 익산시민 누구나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용 가능하여 이용했다는 응답이 22% 순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과 지원을 원하는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주어졌음이 나타났다. 아울러 이용자 대부분이 나눔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심리적·경제적 위로를 받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추후 나눔공간 이용자 선정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위기가구를 선별하여 지원하자는 의견이 7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 대다수가 나눔공간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내 최초로 운영된 익산 나눔공간은 개장과 동시에 지역사회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개장 9개월만에 348건, 총 9억여원의 기부금품이 기탁됐고 1만6천여명이 나눔공간을 이용했다. 특히 나눔공간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킨 결과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 산하 사회혁신실험센터(센터장 강영숙)가 군산시 사회경제적 선진모델 창출 포럼을 주제로 사회적경제포럼을 진행하였다.

'지역민을 바탕으로 무엇을 먼저'

군산대 사회혁신실험센터, 선진모델 창출 포럼 진행

군산대학교 LINC+사업단 산하 사회혁신실험센터(센터장 강영숙)가 '군산시 사회적경제 선진모델 창출'을 주제로 사회적경제포럼을 진행하였다. 포럼은 김영철 LINC+ 사업단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고, 김경식 시의원(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및 신영대 국회의원의 축전을 통한 축하순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적경제포럼 4차로 진행된 이 포럼은 군산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실현 방안을 심층 토론하였던 1차에서 3차까지의 진행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군산대학교는 지역사회 의 지지체, 중간조직, 현장실천가, 기업가, 공공기관, 학교를 아우르는 사회적경제포럼단을 구축하여 지난 포럼 내내 군산시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지역사회와 지역민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떤 목표를 두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흥기민 박사는 미국의 클리블랜드와 영국의 프레스턴 지역 모델 사례를 바탕으로 군산시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하기 전 사회적경제의 정체성 즉 기업체의 경쟁력과 지역민을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 중 무엇을 먼저 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 주유소서 요소수 판매, 수급 안정 '총력'

아톤산업 주유소... 공급 확대

익산시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를 개시하는 등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요소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유)아톤산업과 협의해 주유소 4곳에서 요소수 판매를 시작했다. 판매처는 풍차주유소, 현대공단주유소, 동원 제2주유소, 동양산업 석암지점 주유소 등이다.

판매처에 대한 정부의 조정명령으로 주유소에서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다. 용기로 요소수를 구입한 시민은 구매

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할 수 없다. 정부 방침으로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되면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던 익산시의 요소수 직접 판매는 당분간 중단된다. 하지만 건설 현장이나 대형운수업체 등 판매업자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은 경우는 판매를 이어갈 예정이다. 익산시는 정부의 지침을 토대로 요소수 직접판매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수급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익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요소수 제조업체(유)아톤산업은 정부의 조정명령에 따라 지역 주유소에 요소수 공급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지난 11일부터 요소수 판매업자에 대한 조정 명령을 시행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앞서 시는 요소수 품귀 현상 발생 즉시 지역 요소수 제조업체인 (유)아톤산업과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난 8일부터 필요한 시민들에게 직접 판매에 나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다. (유)아톤산업은 협약 체결 이후 화물연대 익산지회, 건설기계 익산지회, 건설산업 화물운수 익산지회와 소방차, 청소차 등 특수목적차량, 시내버스, 전세버스, 농기계 등 4천여 대의 차량에 30톤의 요소수를 공급했다. 정현을 시장은 "향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며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익산 시민들에게 요소수를 우선 공급해준 아톤산업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학술포럼, 도시재생 성과공유회 성료

군산의 도시재생 이야기를 가지고 소통하는 공유회가 시민들의 호응속에 마무리됐다.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4일과 5일 군산 도시재생 8년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군산시 도시재생 성과공유회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8년의 기록, 도시재생을 이야기하더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성과공유회는 도시재생활화와 함께하는 학술포럼과 군산 도시재생 8년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이야기비 전시로 진

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zoom)으로 개최된 학술포럼은 김형집 부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도시재생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로 시작했다. 송석기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가 최장어로 토론을 이끌었으며 자유형 군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이근영 군산문화공유센터 코디네이터, 권원석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 종합토론에서는 시민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펼쳐졌다. /군산=남현봉 기자

도시재생 이해하기, 주민참여, 영상 기록, 8년사 함께 읽기, 힘더하기, 도시재생 특집이라는 7개의 ZONE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이야기비 전시장은 300여명의 시민이 방문해 함께 만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이래 지난 8년 동안 월명동, 중앙동, 해신동 등의 도심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됐다. 현재는 15개 지역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소룡동 도시재생 주민주도 소리마을축제 성료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든 마을 축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며 큰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2021 소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꿈뚝(꿈이 있는 동네)의 '2021 소리마을 주민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소리만 들리는 소룡동 소리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소룡동 1389-9번지 일원에서 개최됐다.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소통과 화합, 나눔의 장을 갖고자 마련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이날 축구드론 시연 및 체험 RC가운전과 로봇 시연 및 체험 핸드메이드 제품 판매 및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과 마을상점, 플리마켓 등을 운영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아동 놀 권리 축제 '놀면서 자란다' 개최

아동친화도시 익산시가 아동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대표 놀이를 발굴해 아동 놀 권리 축제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13일 정현을 익산시장,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등 아동 가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모현공원에서 제1회 아동축제 '놀면서 자란다'를 개최해 성황리에 축제를 마쳤다. 이날 코로나19 이후 평범한 일상에서 놀이문화가 생소해져 버린 아이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꽃잎염색 ▲알까기 ▲오징어 게임 ▲달고나 만들기 ▲대결 농구 슛 등 20개의 놀이를 체험했다. 체험에 참가한 아이들은 "선생님 어떻게 놀아요?", "엄마 아빠도 이렇게 놀았어요?" 등의 질문을 쏟아내며 '세대간 놀이 경험'을 공유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성황리 열려

익산시는 제19회 익산시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가 정현을 익산시장, 이종립 농협중앙회익산지부장, 각 농민단체장을 비롯해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합월을 아사달공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단체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위드코로나 방역수칙 규정을 준수하며 개최된 이날 행사는 익산시의 농업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익산시 농업경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농업경영 발전에 기여하여 주신 농업경영인 중 2명을 선발하여 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에서 우수농업경영인 2명에게 회장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